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10. 21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데이터분석팀장	유정호	☎ 760-726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… '제주DA' 기능 강화

- 21일 농업디지털센터서 영농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 -
- 지원사업 신청 간소화, 농업재해 대응기능 강화 등 이용 편의 확대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농업 디지털플랫폼 '제주DA'의 농업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, 농업재해와 병해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한다.**

○ 농업기술원은 21일 농업디지털센터 회의실에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제주농업 디지털기반 영농지원 시스템 고도화' 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, 사업 성과와 현장 활용 방안,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.

○ 이번 사업은 기존에 구축한 농업데이터와 제주DA의 영농·행정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.

❑ **지원사업 신청과 교육 이력 확인, 영농서비스 이용 절차를 통합·정비해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.**

○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제주DA 앱에서 신청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.

○ 농업인 교육은 신청부터 정보무늬(QR코드)를 활용한 출석 확인, 이수내역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했다.

○ 기존 농업기술원 교육뿐 아니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이수한 교육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.

○ 미생물 분양과 토양검정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비했다.

❑ **농업재해와 병해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측정보와 예보 기능을 강화하고, 농경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보강했다.**

○ 해충 관측장비인 ‘디지털트랩’ 사진으로 자동 식별하는 해충을 9종에서 12종으로, 병해충 발생위험 예보 대상은 12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.

○ 토양수분 관측지점 35개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수준을 산출해 가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.

○ 인공지능(AI)으로 추정한 감귤나무 수와 항공영상 분석으로 파악한 작물 재배정보도 제공해 농업인의 농경지 관리를 돕는다.

○ 서리 자동관측망 10개소의 관측정보도 제주DA와 연계했다.

❑ **행정 담당자가 지역별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와 분석 기능도 개선했다.**

○ 기상·농산물 품질·농업정책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연계하고, 농업경영체 정보의 갱신 주기를 하루 단위로 단축했다.

○ 또한 재배정보와 토양정보 등을 통계와 지도에서 함께 조회·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.

❑ **농업기술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·반영해 10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, 개선된 서비스가 영농현장과 행정업무에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.**

○ 농정 업무 분석과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후속 디지털서비스 과제는 필요성, 업무 개선 효과, 추진 여건 등을

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❑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, 행정에서는 데이터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‘제주DA’의 기능을 보완했다”며 “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영농과 농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